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연구*

- '-(으)ㅁ', '-기', '-(으)ㄹ 것'을 중심으로 -

김유정**

〈차 례〉

1. 서론
2.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의 실제
   1) 장르-텍스트-문법 모델 이론
   2)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제안
   3)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개발 단계
3. 장르-텍스트-문장 종결 기능의 '-(으)ㅁ', '-기', '-(으)ㄹ 것'
   1) 문장 종결 기능의 '-(으)ㅁ'
   2) 문장 종결 기능의 '-기'
   3) 문장 종결 기능의 '-(으)ㄹ것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법 항목이 텍스트와 장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여 실제 담화 상황에서 문법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문법 사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1-AAA-2101).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을 활용하여 문법 교수를 위한 지침과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명사문과 관련된 한국어 종결 기능의 '-(으)ㅁ, -기, -(으)ㄹ 것'을 대상으로 각 문법 항목과 관련한 텍스트-장르-문법 연결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으)ㅁ'은 제보/호소/선언 장르·텍스트와 연결되며, '-기'는 제보/책무 장르·텍스트와 연결된다. 그리고 '-(으)ㄹ 것'은 호소/책무 장르·텍스트와 연결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각 문법 항목의 차별성을 담화 차원에서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내용(주제)과 결합한 실제 한국어교수 모형과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장르-텍스트-문법 모델, 문장 종결 기능, 명사화, -(으)ㅁ, -기, -(으)ㄹ 것

1. 서론

언어 교실에서 문법 항목의 교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답을 할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적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 또는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의 논의에서도 그리고 Canale & Swain(1983)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하위 항목 중 하나로서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이 제시되는 데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문법 그 이상을 안다는 것을 뜻하며,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둘째,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포함한다.(Scott Thornbury, 1999)[1)]

또한 강현화(200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문법 교수 이론 중 Marianne Celce-Murcia의 담화 맥락 분석(Contextual Analysis)을 설명하면서, 최근 문법 교수는 문장 단위의 문법에서 담화 맥락 속에서의 문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어휘적 접근에서 문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담화적 접근, 다시 말하면 '목표 문형이 어디에서 출현하는지, 해당 맥락에서 문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일반화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법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 문법 교수와 관련된 연구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 문법 항목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적/담화적 기능(용법)을 밝히려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수 방안 연구들이 바로 그것이다.[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법 항목의 교수 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주로 '문법 항목의 개별 기능[4)]

---

1) 이관규 외(2004:40)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2) 강현화(2009)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수의 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문법에 대한 품사적 접근,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문법, 의사소통 접근법에서의 문법, 문법 교수를 위한 담화중심 접근법으로의 변천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문법 교수 이론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담화 맥락 분석을 위해 담화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담화 장르별 출현 빈도, 해당 맥락에서의 의미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담화 장르는 구어/문어에 집중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장르'와 차이를 가진다.

3)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의미, 화용적 기능(용법)을 밝히는 연구들로는 고경태(2008), 이정택(2003) 등 다수, 이를 바탕으로 한 교수 방안 연구로는 이지영(1998), 김지혜(2011) 등 다수가 있다. 순수 국어학 연구 분야로 문법 항목을 다룬 연구도 다수 있으나 여기에서 그 목록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도록 한다.

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5]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반영된 연습 또는 과제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포함하지 못하며, 또한 문법에 대한 담화 차원의 접근 즉, ‘목표 문형이 어디에서 출현하는지, 해당 맥락에서 문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사용 방식’과 ‘담화적 사용 양상’을 포함한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장르-

---

4) 여기에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항목 자체에 중심을 둔 것이며, 뒤에 제시하는 ‘장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와 관련된 문법의 사용 양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가 있다’의 ‘기능’은 ‘존재 서술하기’가 되지만, ‘-이/가 있다’의 장르는 ‘과학적 텍스트’에서는 ‘묘사하기’, ‘가족소개’에서는 ‘설명하기’가 된다.

5) 이종은(1998)과 이지영(199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은(1998)에서 제시된 모형에서는 ‘-아/어야 되다, -(으)면 안 되다’ 등을 의무, 허락, 금지라는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지영(1998)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설명하기, 긴 대화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 등은 결국 문법 항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항목에 대응되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법 교수 활동 방안이다. 즉, ‘-는데’의 설명하기, 긴 대화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 기능이 어떠한 텍스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이러한 연습 또는 과제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문법의 기능이 담화 속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는데’의 교수 모형 예시(이지영, 1998:173~174)>

자유 담화: {-는데}를 사용해서 설명하기, 긴 대화 만들기, 이야기 만들기 (주제 제시, 자유 주제)

ㄱ. 설명하기 1: 두 명씩 짝 지어서 설명할 단어를 결정하고 {-는데}를 사용해서 설명 (시계: 이것은 시간을 보기 위한 것인데, 시계라고 합니다. 불고기: 이것은 불고기인데, 맛있는 한국음식입니다.) / ㄴ. 설명하기 2: 사진 보고 사진 속의 인물 설명하기 (가족사진: 이 분은 제 아버지이신데, 아주 자상하고 좋은 분입니다.) / ㄷ. 긴 대화 만들기: 긴 대화 속에서 단어만 바꾸어 연습 (‘청바지 입다’ 대신 ‘신발 신다’, ‘모자 쓰다’, ‘선글라스 쓰다’ 등의 단어로 바꾸어 연습) (예 생략) / ㄹ. 이야기 만들기: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로 만들어 말하기 (예 생략)

텍스트-문법 모델(Genre, Text and Grammar model of language)'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둘째,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을 제안하며, 셋째, 이 모형을 한국어 문법 항목 '-(으)ㅁ', '-기', '-(으)ㄹ 것'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6]

2.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의 실제

이 장에서는 Peter Knapp and Megan Watkins(2005)의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장르-텍스트-문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연결 모형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장르-텍스트-문법 모델 이론[7]

Peter Knapp and Megan Watkins(2005)가 주장하는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은 '글을 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이 모델의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쓰기의 규약이 되는 장르와 문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데 있다. 이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8]

첫째,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에서는 언어가 비록 개인에 의해 산

---

6) 연구 대상을 '-(으)ㅁ, -기, -(으)ㄹ 것'으로 선정한 이유는 3장에서 제시한다.

7) 장르 기반 문법 모델이라는 용어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Peter Knapp and Megan Watkins(2005)의 논의에서도 장르 기반 문법이라는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장르와 텍스트, 그리고 문법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Peter Knapp and Megan Watkins(2005)의 내용을 번역한 주세형 외(2007:4~2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출되는 것이지만 그 구조와 얼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에 의한 창의적 개별화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놓여 특정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개인이 생성한 문법적 구조나 형식을 텍스트로 보고, 그것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에서 장르와 텍스트, 그리고 문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장르는 텍스트가 생산되는 사회적 맥락과 관계이다.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결과물이나 텍스트 유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묘사하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주장하기, 서사하기 등과 같은 장르 일반적 과정의 핵심 집합이라고[9] 할 수 있다. 묘사하기는 '대상을 상식이나 전문적인 의미틀에 입각하여 질서 짓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기는 '현상을 시간적·인과적 관계에 따라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지시하기는 '행위나 행동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주장하기는 '독자에게 특정 입장을 수용하도록 명제를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텍스트는 생산물을 구성하기 위한 언어적 처리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다.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언어는 텍스트라고 부르는 결속적인 단위로 조직되는데, 텍스트는 일상적, 격식적, 오락적, 정보적, 문학적, 사실적, 미디어 텍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조직될 수 있다. 텍스트는 앞에서 정의한 장르가 구조화된 산물로서

9) 핵심 기능이라고 함은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개의 언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문장의 미시적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문장 기능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텍스트의 목적(의도 기능)을 의미한다. 텍스트가 하나의 장르와 관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많은 텍스트들은 다중 장르가 구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의 경우 '묘사하기-설명하기-논증하기'의 다중 장르가 구현될 수 있다. 다중 장르에 관해서는 주세형 외(2007:15-16)를 참조할 수 있다.

보고서, 에세이, 매뉴얼, 요리법, 논술, 토론, 동화, 신화, 서사물, 서평, 여행기, 편지, 기사 등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문법은 텍스트에서 단어들을 구성할 때 언어 사용자들이 숙지해야 할 선택 사항과 제약 사항들이다. 따라서 문법은 맥락 안에서 활용되어야 하며,[10] 문법은 장르, 그리고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에 연계될 때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즉 언어 체계의 사용자에게 문법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유용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르-텍스트에 기반을 둔 문법은 언어 사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르가 나름의 독특하고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부호화되는 양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셋째, 장르와 텍스트와 문법은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범주들로, 이 모델이 유용한 것은 이 세 가지 범주들이 서로 명백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Peter Knapp and Megan Watkins(2005)의 논의는 주로 영어 모국어 교육에서 쓰기 교육과 관련한 문법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쓰기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문법과 장르와 텍스트의 관련성에 집중한 부분을 아이디어로 하여 한국어 문법 교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담화와의 관련성을 발견하고 이를 교수요목 모형으로 개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둔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한국어 문법 교수를 위해 필요한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의 이론이 주는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이는 전통적인 문법에 대한 관점(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 그리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문법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문법을 교육 맥락에서 다루는 교육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을 통한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

① 한국어 사용의 사회적 규약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한국어 사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특정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장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텍스트의 발견이 요구된다.

③ 한국어의 장르와 텍스트, 문법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11]

④ 장르-텍스트-문법은 서로 명백하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장르-텍스트-문법의 연결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고 목록화가 될 필요가 있다.[12]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한국어 문법 항목을 가르칠 때 '사회적 사용 방식'과 '담화적 사용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3] 즉, 문법을 형태, 통사 중심으로 '문법이 무엇이다'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

11) Peter Knapp and Megan Watkins(2005)는 주로 '쓰기'와 관련하여 텍스트-장르-문법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쓰기' 외에도 '말하기'와 연관하여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상적인 대화 텍스트로 대화할 때 약속하기 장르에서 '(동사원형) + -기'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격식적인 논문 발표 말하기 텍스트의 경우 유래 설명하기 장르에서 '-되다'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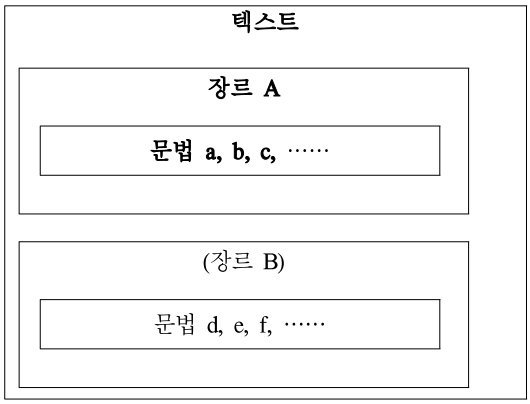
12) 이는 문법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고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13)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이 문법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문법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문법 항목에 따라 '규칙을 통해, 예시를 통해, 연습 활동을 통해, 텍스트를 통해'(Scott Thornbury, 1999, 이관규 외, 2004에서 재인용) 교육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하면 문법 항목의 고립된 교수보다는 담화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텍스트와 장르라는 거시적인 현상과 연결하여 봄으로 인해 '문법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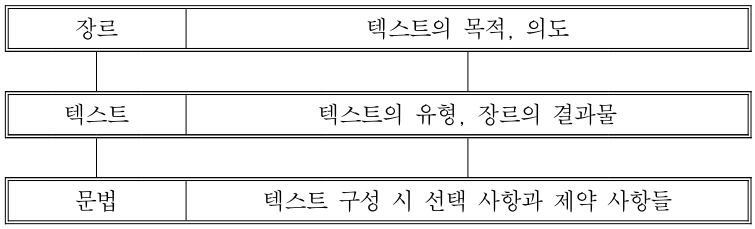
Derewianka(1990:19)의 장르 모델을 응용하여 텍스트에 장르와 문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4]



<그림 1> 텍스트 내 장르와 문법 구현 모델

<그림 1>은 단일 장르 혹은 다중 장르로 구성되는 텍스트는 문법 요소에 의해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그림 2>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4) Derewianka(1990:19)의 장르 모델은 언어 사용의 절차를 의미하는 모델로, 발화 목적인 장르가 발현이 되면 상황에 맞는 텍스트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에 장르와 문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힌 모델이다.



<그림 2>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제안

이러한 이론을 실제 텍스트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Peter Knapp and Megan Watkins(2005)에서 제시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15]

(가) 영어 동물 보고서[16]

Turtles are reptiles and are cold blooded. Turtles **have** a hard box-like shell which protects the soft body and organs. It is composed of an section called a carapace and a lower plate called a plastron. The head, tail and legs of turtles **have** scales for protection. …… Turtles **can** breathe on land and under water. They mainly eat jellyfish, sea snails and other sea animals.



<그림 3> 영어 동물 보고서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15) 주세형 외(2007:15, 87~121)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6) 주세형 외(2007:101)에서 부분 인용하였다.

위의 예는 동물에 관한 보고서(텍스트)는 '묘사하기' 즉 속성과 능력을 묘사하는 장르로 구성되는데, 이때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문법으로 'have/has'가 사용되고, 능력을 묘사하기 위한 문법으로는 양태 조동사 'can'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가)를 한국어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한국어 번역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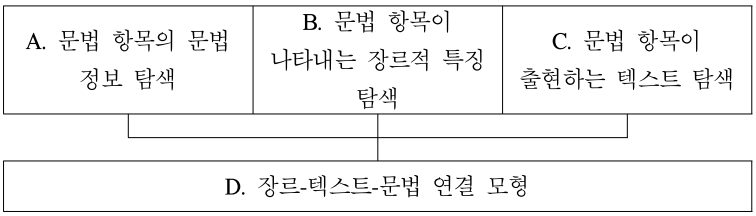
거북이는 파충류이며 냉혈 동물이다. 거북이는 부드러운 몸체가 있고,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단단한 상장 모양의 껍질**로 덮여 있다. (혹은 껍질이 있다.)** 거북이는 갑각이라고 불리는 윗부분과 복갑이라 불리는 아랫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와 꼬리, 그리고 다리는 비늘**로 덮여 있다. (혹은 비늘이 있다.)** …… 거북이는 물속과 육지 모두에서 숨을 **쉴 수 있다.(혹은 숨쉬기가 가능하다)** 그들은 주로 해파리나 바다 달팽이, 그리고 몸이 말랑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바다 생물을 먹는다.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같은 종류의 텍스트와 장르에서 영어문법 have/has는 한국어 문법 '-이/가 있다' 혹은 '-로 덮여 있다'나 '-로 되어 있다.'와 대응되며, can은 '-(으)ㄹ 수 있다'나 '-기가 가능하다', 혹은 '-이/가 가능하다'와 대응된다. 따라서 언어권마다 '텍스트-장르-문법'은 개별적인 특성을 전제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개발 단계

여기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장르-텍스트-문법 모델 이론을 응용하여 한국어 교육 문법 교수를 위해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그림 4>와 같이 제안한

다. A. 문법 항목의 문법 정보 탐색과 B. 문법 항목이 나타내는 장르적 특징 탐색, 그리고 C. 문법 항목이 출현하는 텍스트 탐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정보들을 조합하여 문법 교수를 위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이 설정될 수 있다. 탐색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17] 따라서 가능한 연결 모형 개발 절차는 A-B-C-D, A-C-B-D, B-A-C-D, B-C-A-D, C-A-B-D, C-B-A-D의 6가지가 있다.[18]



<그림 4>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개발 단계[19]

본고에서 제시하는 각 탐색 단계의 의미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문법 항목의 문법 정보 탐색: 문법 항목의 형태·통사 정보와 기본의미에 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연구 대상인 문장 종

17) 여기에서의 탐색은 사전 및 말뭉치 자료를 통한 탐색을 의미하기도 하며, 연구자나 교수자의 직관에 의한 탐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연구 업적으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자와 교수자의 직관이 이론적 탐색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D단계를 먼저 설정하고 그 연결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 B, C단계의 탐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총 24가지의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론적 탐색을 통한 모형 개발에 집중하여 6가지로 제시한다.

19) 이 연구에서는 '문법' 교수를 위해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결 모형은 '장르'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교수할 때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결 기능을 하는 '-(으)ㅁ', '-기', '-(으)ㄹ 것' 항목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기술 항목은 특징적인 품사 제약 정보, 형태 제약 정보, 시제 제약 정보, 주어 제약 정보, 기본 의미이다.[20]

B. 문법 항목이 나타내는 장르적 특징 탐색: 문법 항목이 나타내는 장르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방법은 문법 항목이 사용된 문장과 텍스트가 어떤 장르로 수행되는지를 말뭉치를 통해 혹은 연구자(교수자)의 관찰과 직관에 의해 가능하다.

C. 문법 항목이 출현하는 텍스트 탐색: 문법 항목이 출현하는 텍스트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 단계 역시 객관적 관찰과 직관에 의해 탐색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 연구자의 견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고의 목적이 각 단계의 내용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의 개발과 그 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21]

본고에서는 B와 C단계를 위해 Klaus Brinker(1992)에서 제안된 텍스트의 기본 기능과 텍스트 유형을 각각 장르와 텍스트 탐색을 위한 기술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22]

---

20) 이러한 기술 방법은 김유정(2005:616)에서 제안된 문법 자질 유형을 응용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문법 자질 유형으로 형태, 통사, 의미 자질 외에 사회언어학적 의미 자질과 담화적 의미 자질을 들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는 제시하지 않는다. 두 의미 자질은 장르 탐색과 텍스트 탐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21) 이는 향후 장르, 텍스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2) Klaus Brinker(1992)에서는 텍스트의 기능은 '일정한, 규약적으로 타당한, 곧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구속력 있게 규정된 수단들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표현된 생산자의 통보의도'를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이성만 역(1994:109-11)에서 재인용하였다.) 이는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의 장르와

<표 1> 장르와 텍스트 탐색 기준

	장르	텍스트
제보	통지, 발표, 알리기, 보도, 공표, 보고, 통고, 가르치기, 묘사, 설명, 확언, 주장, 예보, 진단, 기술, 정의, 서술 등 (발화자는 사태를 서술하고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	뉴스, 보도(보고), 진단소견서, 서평, 독자편지, 논문, 보고서, 사업 계획서 등
호소	요청, 지시/지령, 명령, 부탁, 조언, 추천, 질문, 신청, 청구, 주문, 제안 등 (발화자는 수용자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함.)	선전광고, 홍보텍스트, 논평, 논평[23], 법규, 작업안내서, 사용지침, (의사) 처방전, 법률텍스트, 지원서, 신청, 청원서, 설교 등
책무	약속, 서약, 맹세, 협박, 내기, 계약, 보증, 계획, 결심 등 (발화자는 수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시키고자 함.)	계약서, 보증서, 서약서, 맹서, 상품전단, 생활계획표 등
접촉	감사, 축하, 사과, 조의, 불평, 환영, 인사, 저주 등 (발화자는 수용자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사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입장을 표현하고자 함.)	감사/축하/조문/연애편지(엽서, 카드) 등
선언	임명, 전쟁선포, 혼례, 해약, 해고, 파문 등 (발화자는 수용자에게 명제 내용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음을, 텍스트의 발화가 일정한 사실을 도입하고 있음을 이해시키고자 함.)	유언장, 임명장, 판결문, 위임장, 증명서 등

일치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세형 외(2007)에 제안된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에서는 장르와 텍스트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Brinker(1992)의 논의를 따라 텍스트 기능을 장르로 텍스트 유형을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장르와 텍스트 종류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연구 속에서 수정 가능할 것이다.

D.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A, B, C 단계의 탐색 후 여러 가지 정보 중 서로 연관되는 항목으로 조합하는 단계이다. 본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단계로서 문법을 교수할 때 문법의 사용 양상을 고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장르-텍스트-문장 종결 기능의 '-(으)ㅁ', '-기', '-(으)ㄹ 것'

이 장에서는 한국어 문법 항목 중 문장 종결 기능을[24] 하는 '-(으)ㅁ', '-기', '-(으)ㄹ 것'을 선정하여 각 문법 항목들이 어떤 장르와 텍스트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문법 항목들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25]

예1)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함.
예2)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기.
예3)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할 것.

이 항목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

23) 표 1)에 제시되는 텍스트 유형들 중 많은 부분은 다중 장르가 출현하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논평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전달하는 일(제보)과 동시에 자기의 평가를 수용자들이 위임받기를 지향한다. 따라서 다중 장르가 등장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이성만 역, 1994:130)

24) 여기에서 '종결 기능'으로 제시하였으나, 홍종선(1983)에서는 '명사문을 만드는 관용적 용법', 우형식(1987)에서는 '명사화 종결어미', 김종복 외(2008)에서는 '문장 종결 어미 역할'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25) '-음', '-기', '-ㄹ 것' 뒤에 조사가 결합될 수 있는 내포절 형태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으)ㅁ', '-기', '-(으)ㄹ 것'은 모두 명사화와 관련한 문법 항목이다. 물론 앞의 두 가지는 '명사형 어미'이고, '-(으)ㄹ 것'은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의 결합 형태로 문법적 범주는 다르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는 모두 명사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문어에서 문장(담화) 종결 기능을 하는 것이 발견된다. 그러나 앞의 예1)~예3)처럼 문장 차원에서 이들 문법 항목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한재영 외(2003:232-233)에서도 '-(으)ㅁ, -기'와 '-(으)ㄹ 것'에 대한 문법 교수에서 명사 및 명사형 종결 표현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나 의미 파악을 통한 평서형과 명령형의 대체 연습의 예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연습 활동으로 세 가지의 문법 항목을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26]

둘째, 이 세 항목은 한국어 문법 항목에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한 예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문법 항목은 각기 특징적인 장르적 성격과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어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세 항목이 문법 항목의 용법

---

26) 한재영 외(2003:233)의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쓰기와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 서술형과 명령형을 전환하게 하는 바꿔 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텍스트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규칙으로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6)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이므로 수업 없음.
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추석 연휴이므로 수업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공책에는 어떻게 쓰죠?
나. 6월 15일에 시험이 있을 예정임.
(7)가. 오늘 배운 단어를 모레까지 외워 올 것.
가'. 오늘 배운 단어를 모레까지 외워 오세요. 이걸 여러분들 공책에는 어떻게 쓰죠?
나. 과제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

으로 텍스트, 기능 등이 개별적으로 언급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텍스트와 장르와 문법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으)ㅁ', '-기', '-(으)ㄹ 것'의 선행 연구

	-(으)ㅁ	-기	-(으)ㄹ 것
서정수 (1978)			공고문이나 지시문 따위의 문어체에 사용 / 지령의 의미
홍종선 (1983)	명사문을 만드는 관용적 용법 / 긴장감의 강화 / 현장 상황의 설정을 요구함 / 무전, 일기, 보고서, 사전 등에 사용됨	명사문을 만드는 관용적 용법 / 어떤 행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속담	
우형식 (1987)	명사화 종결어미 / 서술형 / 긴장감, 권위를 주는 공식적 표현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는 의도를 지님 / 경고문, 보고문, 담화문, 공고문, 전신문, 법령, 사전의 주석	명사화 종결어미 / 청유형 / 불특정인에게 어떻게 할 것을 권유하는 뜻 / 공공표어에 등장	
김종복 외 (2008), 김태호 외 (2010)	순수 명사화 접사 기능을 가진 문장 종결 어미 역할	'-(으)ㄹ 것'처럼 명령 구문에 사용 가능하나 명령의 정도 혹은 강제성은 약함	'서술절+것'의 형태로 명령의 의미 / 공공장소, 학교, 가정, 쪽지에서 발견, 자기가 해야 할 목록
함계임 (2009)	보고서와 품의서의 세부 내용의 종결 방식, 협조문의 첨부 내용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을 통해 '-(으)ㅁ', '-기', '-(으)ㄹ 것'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27] 본고에서는 <그림 4>의 개발 단계 중 A-B-C-D 단계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1) 문장 종결 기능의 '-(으)ㅁ'

(1) '-(으)ㅁ'의 문법 정보

문장 종결 기능의 '-음'에 관한 형태·통사 정보와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28]

<A. '-(으)ㅁ'의 문법 정보>
가) 품사 제약: 동사/형용사 어간, 명사+이에 후행
나) 형태 제약: 받침+-음 / 받침이 없거나 ㄹ로 끝나면+ -ㅁ. 말미에 마침표를 사용함.
다) 시제 제약: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 이 선행할 수 있음. '-더-'는 결합 불가함.
라) 주어 제약: 제약 없음(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 가능 / 생략도 가능).
마) 기본 의미: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문장 종결형으로 쓰임.

---

27) 이러한 연구는 국어학, 언어학 등 연계 학문의 연구를 한국어교육에 적극적으로 응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학문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한국어교육이 이론적 바탕을 가진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교사 및 교재 개발자의 능력과 직관에 따라서는 텍스트와 문법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작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비로소 한국어교육 이론으로서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노력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8) 이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홍종선(1983) 등 선행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2) '-(으)ㅁ'의 장르

예4)에서 예21)까지를 통해 문장 종결 기능의 '-(으)ㅁ'이 나타내는 장르적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29]

예4) 이곳에 들어가지 못함.
예5) 방금 적기가 나타났음, 오바. (무전 등 구어에서)
예6) 위의 사람은 ……이므로 이에 표창함.
예7) …… 이상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함.
예8) 上記 件은 무효임.
예9) 上記 件은 무효임을 공고함.
예10)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갔음.(일기에서)
예11) 맑음. 흐림. 비(일기에서)
예12) 섬. 멈춤.
예13) …… 이므로 위와 같이 사료됨.(보고서에서)
예14) 일출(日出): 해가 돋음.(사전에서)
예15)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함. 곧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름.(사전에서)
예16) 내일부터 방학에 들어감.
예17) 사람을 찾음.
예18) 이상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
예19)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하기 바람.
예20) 10시에 미선이가 왔다 갔음.
예21) 4시 10분에 회의가 있겠음.
예22) 강순의(아내):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남편: 할 말 없음.[30]

---

29) 이 예는 홍종선(1983:267),『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2005:819)』, 그리고 TV 방송 '인간극장' 2009.6.8. '손맛의 달인 강순의 여사 전성시대 1부 중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장르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30) 이 예는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사이의 일상적 논쟁이 있는 대화가 일어나는 구어 텍스트에서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다는 자신의 의지를

<B. '-(으)ㅁ'의 장르>[31]

가) 제보 장르[32]

a. 통보하기: 예5),

b. 발표하기: 예7)

c. 서술하기: 예4), 예10)

d, 묘사하기: 예11), 예12)

e. 보고하기: 예13), 예17)

f. 정의하기: 예14), 예15)

g. 공지하기: 예4), 예16), 예17), 예21)

h. 통고하기: 예22)

나) 호소 장르[33]

a. 요청하기: 예4), 예12), 예19)

다) 선언 장르

a. 임명하기: 예6)

b. 판결하기: 예8), 예9)

c. 공증하기: 예18)

'-(으)ㅁ'은 주로 제보하기 장르로 많이 등장하며, 다음은 선언하기와 호소하기 장르로 나타난다. 이 때 호소하기 장르는 그 호소

통고하는 장르로 '-(으)ㅁ'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이 단지 문어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구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장르 특성을 기술하나, 텍스트에 따라서는 하나의 예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17)의 경우에는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구인 광고문에서는 공지하기이지만, 개인적인 일정 메모에서는 사건에 대한 서술하기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장르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32) 대부분의 경우 제보가 문어로 나타나는데 예5)의 경우는 구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자료의 시대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방금 적기가 나타났다. 오바."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33) '-(으)ㅁ'과 관련된 호소하기 장르는 호소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요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보의 공지하기 정도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 정도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명령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으)ㅁ'의 텍스트

위의 예들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문장 종결 기능의 '-(으)ㅁ'이 자주 등장하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C. '-(으)ㅁ'의 텍스트>
가) 제보텍스트
a. 개인적 (수첩) 메모
b. 개인적 일기
c. 노트 필기
d. 공고문
e. 보고서, 품의서, 협조문, 사업계획서
f. 사전
g. 친근한 사이의 일상대화 등
나) 선언텍스트
a. 임명장
b. 이력서
c. 판결문 등

예23) 노트 필기 텍스트

1. 객관식 평가(objective tests)
1) 특징 - 특정의 정확한 반응의 답이 오직 하나이고, 채점 신뢰도 높음.
2) 종류 - 다지선다형/ 진위형/ 짝짓기 연결 시험/ 단답 완성형 등
3) 장점 - 학습의 문제점과 지도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
4) 단점 - 이 방법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만을 가르치게 됨.

이러한 텍스트는 앞에서 기술한 장르 중 관계있는 것 즉, 제보 장르와 제보 텍스트와 연결되어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으로

제안될 수 있다.

(4) '-(으)ㅁ'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문장 종결 기능 '-(으)ㅁ'을 교수하기 위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34] 이러한 모형은 실제 한국어 교실 상황에서는 다양한 내용 주제와 결합하여 교수할 수 있다.

<D. '-(으)ㅁ'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35]

장르	보고하기	서술하기	공지하기	보충 설명하기
‖	‖	‖	‖	‖
텍스트	보고서	개인 수첩	공고문	노트 필기
‖	‖	‖	‖	‖
문법	-(으)ㅁ	-(으)ㅁ	-(으)ㅁ	-(으)ㅁ

장르	선언하기	요청하기	정의하기	통고하기
‖	‖	‖	‖	‖
텍스트	임명장	개인적 메모	사전	친밀한 일상 대화
‖	‖	‖	‖	‖
문법	-(으)ㅁ	-(으)ㅁ	-(으)ㅁ	-(으)ㅁ

34)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느냐, 어떠한 의사소통 기술과 연결하여 가르쳐야 하느냐의 측면을 고려하지는 않고 연결 모형의 예를 보이고자 한다.

35) 지면 관계상 함께 모형을 제시한다. 세로로 이어진 장르-텍스트-문법이 하나의 교수요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연결 모형이 제안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명하기-임명장--(으)ㅁ>, <요청하기-구인광고--(으)ㅁ> 등이 있다.

'-(으)ㅁ'은 제보 장르/텍스트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선언 장르/텍스트와 호소 장르/텍스트에도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장 종결 기능의 '-기'

(1) '-기'의 문법 정보

문장 종결 기능의 '-기'에 관한 형태·통사 정보와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기'의 문법 정보>
가) 품사 제약: 동사 어간 뒤에 후행
나) 형태 제약: 받침 유무에 상관없음. 말미에 마침표를 사용함.[36]
다) 시제 제약: 시제 선어말 어미, -(으)시-, -더- 결합 불가함.
라) 주어 제약: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 가능 / 주로 생략하여 사용함.[37]
마) 기본 의미: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문장 종결형으로 쓰임.

(2) '-기'의 장르

문장 종결 기능의 '-기'가 나타나는 예문을 통해 장르적 특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38]

---

36) 현실 텍스트에서는 목차와 같은 경우 마침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37) 장르와 텍스트에 따라 주어의 생략 유무는 교실 현장에서 적절하게 교수되어야 한다.

3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2005:67)』, 홍종선(1983:270) 등에 제시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24) 누워 떡먹기.
예25) 소귀에 경 읽기.
예26) 엎드려 절 받기.
예27) 우유 빨리 먹기.
예28) 늦게 도착한 사람이 돈 내기.
예29) 하루 한 시간 책 읽기.
예30)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예31) 남자: --하기 있기? 없기?
여자: 있기. (개그콘서트, <있기, 없기> 코너 중)

<B. '-기'의 장르>
가) 제보 장르[39]
a. 개념 열거하기: 예30)
b. 명명하기: 예24)~예30)
나) 책무 장르
a. 계획하기: 예27), 예29)
b. 약속하기: 예27), 예28), 예29)
c. 협박하기: 예31)

문장 종결 기능을 하는 '-기'는 동사 어간에만 붙어서 사용된다. 이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행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다.[40] 이러한 문법적 특성이 명명하기, 열거하기, 계획하기, 약속하기의 장르로 나타나고 있다.[41] 반면에 예31)

---

39) 여기에서는 문장 차원에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명명하기 장르가 많이 드러나나 실제로 텍스트와 연결되면 열거하기 장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0) 홍종선(1983:270)에서 인용하였다. 홍종선(1983)에서는 '-음'과 달리 '-기'는 문장에 나타난 1차적인 사실보다도 의미 개념이 일반화된 단순한 명사화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속담의 경우에도 '누워서 떡먹음'이라고 하면 누워서 떡 먹는 현장 상황의 설정을 요구하며 그것으로 끝나나 '매우 쉽다'는 비유적인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를 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41) 예24), 25), 26)은 모두 속담이다. 속담은 어휘로서 문장 혹은 구어 발화

은 구어에서 '동사 어간+기 있기? 없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42]

(3) '-기'의 텍스트

위의 예들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문장 종결 기능의 '-기'가 자주 등장하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C. '-기'의 텍스트>
가) 제보 텍스트
a. 책의 목차
b. 행사 안내문
c. 노트 필기
나) 책무 텍스트
a. 개인 생활 계획표
b. 개인 일정표
c. 공식적 사업 목표 공고문
d. 공동생활 규칙 공지문
e. 사적인 모임의 규약문
f. 친밀한 일상 대화

예32) 2011 강화 개천대축제(축제프로그램) 안내문

항 목	내 용
쑥비누 만들기 핸드 프린팅[43] 고추장 만들기	▢ 일시: 10월 1일(토)~3일(월) 10:00~18:00 ▢ 장소: 체험 / 전시 부스 ▢ 구성: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 섭외인력: 아르미애 월드 강사섭외(강사 보강)

내에서는 통사적인 표지들인 '-던데, -라고 등'과 결합하여 사용이 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예는 속담의 명명하기 장르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42) 따라서 이 경우는 '-기'의 문법 정보와 다르므로 다른 문법 항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의 구어적 용법을 보이기 위해 예로 제시한다.

43) 미시적 장르로 명명하기를 하는 경우에는 '하다'와 결합하는 동사는 '하

(4) ‘-기’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이상으로 확인된 문장 종결 기능 ‘-기’를 교수하기 위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D. ‘-기’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장르	명명하기	약속하기	개념 열거하기	협박하기
‖	‖	‖	‖	‖
텍스트	책의 목차	모임의 규약문	노트 필기	친밀한 일상 대화
‖	‖	‖	‖	‖
문법	-기	-기	-기	-기 있기? 없기?

장르	계획하기	계획하기	계획하기
‖	‖	‖	‖
텍스트	개인 1년 계획표	개인일정표	사업장 연간 계획 공고문
‖	‖	‖	‖
문법	-기	-기	-기

문장 종결 기능의 ‘-기’는 제보와 책무에 관련된 장르와 텍스트에 관련된다. ‘-기’가 사용되는 제보 장르는 ‘-(으)ㅁ’이 사용되는

다’앞에 제시된 명사로 끝나는 명사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동사들은 모두 ‘-기’와 결합한다.

제보 장르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계획하기 장르에 사용되는 '-기'라고 하더라도 텍스트에서는 '개인 1년 계획표, 사업장 연간 계획 공고문, 개인 일정표' 등으로 다르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 문장 종결 기능 '-(으)ㄹ 것'

(1) '-(으)ㄹ 것'의 문법 정보

문장 종결 기능의 '-(으)ㄹ 것'에 관한 형태·통사 정보와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으)ㄹ 것'의 문법 정보>
가) 품사 제약: 동사 어간 뒤에 후행
나) 형태 제약: 받침+-을 것 / 받침이 없거나 ㄹ로 끝나면 -ㄹ 것. 말미에 마침표를 사용함.
다) 시제 제약: 시제 표지 올 수 없음. 선어말어미 '-(으)시-, -더-'의 사용도 불가함.
라) 주어 제약: 2인칭 가능(자신을 독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2인칭으로 볼 수 있음) / 주로 생략하여 사용함. 단, 다수를 대상으로 하나 그 대상을 분명히 한정하는 경우는 드러나기도 함.)[44]
마) 기본 의미: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문장 종결형으로 쓰임.

44) 예를 들어 개인적 쪽지에서 '청소는 수미가 하고, 설거지는 영희가 할 것.'과 같은 경우나 공식적인 공고문에서 '해당자는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등이 있다.

(2) ‘-(으)ㄹ 것’의 장르

문장 종결 기능의 ‘-(으)ㄹ 것’이 나타나는 예문을 통해 장르적 특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예33) 세 시까지 사무실로 올 것.
예3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예35) 하루에 세 번 이를 닦을 것.
예36) 에너지를 절약할 것.

<B. ‘-(으)ㄹ 것’의 장르>
가) 호소 장르
a. 요청하기: 예33), 예34), 예35), 예36)
b. 제안하기: 예34), 예35), 예36)
c. 경고하기: 예34)
나) 책무 장르
a. 계획하기: 예35), 예36)

‘-(으)ㄹ 것’의 장르 특성은 개인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동등한 관계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 예35), 예36)은 자기 자신에게 당위의 강도를 높여서 계획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34), 예35), 예36)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장르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 유지법, 생활비 절감법과 같이 특별한 해법을 소개하는 경우에 요청하기보다는 ‘-는 것이 좋다/-어야 하다’로 해석될 수 있는 제안하기의 장르에 사용할 수 있다.

(3) ‘-(으)ㄹ 것’의 텍스트

문장 종결 기능의 ‘-(으)ㄹ 것’이 자주 등장하는 텍스트는 다음

과 같다.

<C. '-(으)ㄹ 것'의 텍스트>
가) 호소 텍스트
a. 개인 간(동료,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쪽지
b. 건강 관련 지침서
c. 벽보 경고문
d. 작업 안내서
나) 책무 텍스트
a. 개인 일정표

가a)는 동료/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하거나 행동을 요청하는 텍스트이며, 가d)는 공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다. 나a)는 '-기'로 제시할 수 있는 계획 중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획(강조)하기 장르를 사용한다. 가b)는 치아 건강을 위한 건강 관련 책자에서 '치아 건강을 위한 수칙 사항'으로 '하루 세 번 이를 닦을 것,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것' 등과 같이 사용되어 제안하기 장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가c)는 벽에 붙이는 경고문으로 '낙서 금지'보다 '낙서하지 말 것'으로 제시되었을 때 필자의 경고성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 벽보 경고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37) 벽보 경고문

경 고

여기에 침을 뱉지 말 것.

(4) ‘-(으)ㄹ 것’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문장 종결 기능 ‘-(으)ㄹ 것’을 교수하기 위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D. ‘-(으)ㄹ 것’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장르	요청하기	계획하기 (강조)	경고하기	제안하기
‖	‖	‖	‖	‖
텍스트	개인 간 쪽지	개인적 일정 메모	벽보 경고문, 작업안내서	건강지침서, 노트 필기[45] (세부 지침)
‖	‖	‖	‖	‖
문법	-(으)ㄹ 것	-(으)ㄹ 것	-(으)ㄹ 것	-(으)ㄹ 것

이러한 연결 모형은 문법 ‘-(으)ㄹ 것’의 사용 양상을 담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문법 ‘-(으)ㄹ 것’은 주로 호소와 책무와 관련된 장르와 텍스트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가 사용되는 책무 관련 장르와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문법 항목이 텍스트와 장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45) ‘-(으)ㅁ, -기, -(으)ㄹ 것’에 모두 노트 필기 텍스트를 제시한 것은 노트 필기 텍스트가 다중 장르로 구성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중 장르가 사용되는 텍스트들(노트필기)을 교수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파악하여 실제 담화 상황에서 문법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장르-텍스트-문법 모델을 활용하여 문법 교수를 위한 지침과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명사문과 관련된 한국어 종결 기능의 '-(으)ㅁ, -기, -(으)ㄹ 것'을 대상으로 각 문법 항목과 관련한 텍스트-장르-문법 연결 모형을 제안하였다. '-(으)ㅁ, -기, -(으)ㄹ 것'의 장르-텍스트-문법 간 유기적 관련성을 연결 모형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46]

<그림 5> '-(으)ㅁ, -기, -(으)ㄹ 것'의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장르	제보 선언 호소	제보 책무	호소 책무(강조)
‖	‖	‖	‖
텍스트	개인일지, 노트필기 증명서 공고문	행사 안내문 개인 생활계획표	작업 안내문 개인일정표 (강조)
‖	‖	‖	‖
문법	-(으)ㅁ	-기	-(으)ㄹ 것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항목을 문법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장르와 텍스트와 연관 지어 살핌으로써 의사소통의 담화적 양상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문법 항목을 가르칠 때에는 적절한 장르와 텍스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가르칠 때에는 그 텍스트의 주요 장르와 해당 문법 항목을 연결할 수 있도록

46) 장르-텍스트는 제시 순으로 일치한다.

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어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을 사전이나 교재에 기술할 때 필요한 용법 사항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47]

셋째,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장르, 텍스트의 기존 연구 성과들을 통합하는 학문간 통합 작업의 필요성과 함께 이들 요소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 또한 제안한다.

넷째, 학습자들에게 언어권마다 다른 장르-텍스트-문법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 사용의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자들에게는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에 관한 주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조언어학적 연구는 언어 교수 현장과 통/번역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르-텍스트-문법 연결 모형 개발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어 교실 현장에서 '-(으)ㅁ, -기, -(으)ㄹ 것'이 장르-텍스트-문법, 내용(주제)과 결합하여 어떻게 교수될 수 있는지 교수 모형과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범모,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47) 『표준국어대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는 기술 체제도 다르지만 내용도 다르다. '-(으)ㄹ 것'의 장르에 관한 설명을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냄'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을 알릴 때 쓴다.'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와 후자의 모두 연구에서 제안한 '호소, 책무 장르'도 나타나나 후자에서는 '해야 할 일을 알릴 때 쓴다.'와 같이 제보 장르가 등장한다.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999.
강현화, 「최신 문법교수 이론의 경향과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문법교육』 11, 2009, pp. 1-27.
고경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명사화소 '-음', '-기' 연구」, 『문법교육』 8, 2008, pp. 1-29.
김영미,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장르 기반 접근법으로」, 『한국어교육』 21-1, 2010, pp. 87-123.
김유정, 「교재 개발 시 주제·기능·문법의 상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국어 연구와 의미 정보』, 도서출판 월인, 2005, pp. 605-626.
김일환, 「명사형 어미 '기'의 특이성」, 『한국어학』 28, 2005, pp. 39-53.
김종복·강우순·안지영, 「말뭉치에 나타난 '것' 구문의 유형 및 특성」, 『언어과학연구』 45, 2008, pp. 141-163.
김지혜,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6, 2001, pp. 45-65.
김태호·김종복, 「한국어 '것' 구문의 명령용법」, 『현대문법연구』 59, 2010, pp. 25-37.
김홍규·강범모,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남기심, 「불완전명사 '것'의 쓰임」,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991, pp. 71-87.
민현식, 「名詞化」,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0, pp. 213-220.
서정수, 「'ㄹ 것'에 관하여 - '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어학』 6, 1978, pp. 85-110.
우형식, 「명사화소 '- (으)ㅁ' , '-기'의 분포와 의미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12, 1987, pp. 119-160.
이관규 외 역,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2004.
이성만 역, 『텍스트언어학의 이해-언어학적 텍스트분석의 기본 개념과 방법』, 한국문화사, 1994.

이정택, 「한국어교육을 위한 조사 “-가”의 문법」, 『인문논총』 11, 2003, pp. 37-48.
이종은, 「의사소통과 인지 중심의 한국어 문법 교수」, 『한국어교육』 9-2, 1998, pp. 143-160.
이지영, 「한국어 연결 어미의 교수 모형: {-는데}」, 『한국어교육』 9-2, 1998, pp. 161-177.
임홍빈 외,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주세형 외 역, 『장르, 텍스트, 문법: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박이정, 2007.
채완,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1979, pp. 95-107.
함계임, 「직업 목적 한국어의 문체 연구와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업무문서 쓰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5-2, 2009, pp. 249-266.
홍종선,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8-2, 1983, pp. 241-272.
한재영 외, 『한국어 문법 교육한국어교육 총서 3』, 한국어세계화재단 최종보고서, 2003.
Derewianka, B., *Exploring How Texts Work*, Sydney: PETA, 1990.
Larsen-Freeman, D., “Teaching grammar”,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New York : Newbury House, 1991, pp. 279-296.
Marianne Celce-Murcia, “Why It makes Sense to Teach Grammar in Context and Through Discourse”, *New Perspectives on Grammar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2, pp. 119-134.

[사전류]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A Study on the Combined Model of Genre-Text-Grammar: Nominalizer {-eum}, {-ki}, {-el kes} in Sentence Ending

Kim, You-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Grammar items are associated with the Genre and Text, in oder to improve the learner's Korean ability to use grammar in a real discours.

This research has been studied in the following procedure.; ⅰ To introduce Model of Genre, Text, Grammar, ⅱ To propose the direction of Korean Grammar teaching applying the model of Genre, Text, Grammar, ⅲ To develop the combined model of Genre-Text-Grammar, ⅳ To propose the combined model of Genre-Text-Grammar for Nominalizer {-eum}, {-ki}, {-el ket} in sentence ending.

According to the study conclusions, ⅰ {-eum} is related to the Genre-Text of information, declaration, and appeal. ⅱ {-ki} is related to the Genre-Text of information and obligation. ⅲ {-el ket} is related to the Genre-Text of appeal and obligation. These are revealed the difference of three grammar item in terms of discours.

Key words: Model of Genre, Text, Grammar, Nominalizer in sentence ending, Nominalizer, {-eum}, {-ki}, {-el kes}

김유정
소속: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소: 130-76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삼성래미안2차 209-501
전화번호: 010-9349-7131
전자우편: youjeong@korea.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2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